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협약, GCF를 만나다

2017.10.16., 송도 – 크리스티아나 파스카 파머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이 이번 주 GCF 본부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협력을 논의했다.

하비에 만자나레스 GCF 사무부총장 대리는 CBD 사무총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파머 사무총장은 올해 3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전 루마니아 환경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고위 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다자협약이며, 1993년 발효되었다.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유전자원의 혜택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을 주요 조직 목표로 삼고 있다.

GCF는 기후를 주제로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생태계 서비스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 및 그 서비스의 회복력은 GCF의 8개 결과 영역 중 하나이며, 투자기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시켜 생물다양성과 같은 환경 공동편익을 고려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후행동과 생태계 및 생태계 시스템 국가 프로그램 수립시 GCF와 CBD 사무소가 국가수준에서 공조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했다. 국가적응계획 및 GCF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기타 적응계획, CBD하에서 시행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NBSAPs)을 수립할 때에도 서로 상호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기관은 GCF의 지역 구조화대화과 CBD의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간 공조방법 모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는 CBD가 오늘 오전 한국에서 발족한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구상안이다.

.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biodiversity-and-climate-chang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meets-with-gcf?inheritRedirect=true&redirect=%2Fwhat-we-do%2Fnewsroom%2Fnews-stories%3Fp_id%3D101_INSTANCE_tLw79zWwerZZ%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tLw79zWwerZZ_delta%3D30%26_101_INSTANCE_tLw79zWwerZZ_keywords%3D%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ndOperator%3Dtrue%3D

[번역]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eets with GCF

26p_r_p_564233524_resetCur%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cur%3D2